

30. 예레미야서

‘주님께서 급히 보내시다’는 의미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동북방 벤야민의 땅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강대국 이집트·바빌론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모색하던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요시아,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여호야킨, 치드키야 등 5명의 임금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정치적 독립과 종교 개혁을 꾀한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아 임금이 복진하는 이집트 왕 느코 군대를 맞아 싸우다가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왕위에 올랐으나 느코는 그를 폐위하고 동생 여호야킴을 왕위에 올립니다. 여호야킴은 이집트의 눈치를 보다가 세력이 커진 바빌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다시 반기를 들었는데, BC 598년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예루살렘 포위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올랐으나 역시 석달 만에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 폐위당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갑니다(597, 1차).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의 삼촌 치드키야를 왕으로 내세웠는데,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후 바빌론에 반기를 들다가 잡혀 두 아들의 처형장면을 목격하며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역시 유배를 갑니다(587, 2차).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루살렘 대신 북쪽 미츠파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유다를 바빌론의 한 지방으로 만들었으며 왕궁 의전관리였던 그달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옛 왕족의 후예인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달야의 친구들은 네부카드네자르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그의 호감을 샀던 예레미야를 인질로 삼아 이집트로 끌고 갔으며, 결국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온화하여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예언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하느님의 고통과 바빌론을 통해 이스라엘에 내릴 징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뽑고 허물고 다시 세우고 심으려나’(1,10) 신탁은 불온선전으로 매도되어 반대파는 물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조차 박해를 당했던 눈물의 예언자, 고통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까지도 저주하며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연민,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요청, 감당할 수 없는 소명을 주시고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등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소명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지 않아 유배가 끝나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성전이 재건되며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서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31,31 이하에서는 돌 판에 새겨주었던 구약과 달리 가슴과 마음에 주님의 법을 새겨주는 새 계약 신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중에 가장 긴 예레미야서는 다섯 가지 상징으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먼저 허리에 걸쳤던 아마포 띠를 숨겼다가 다시 가져오게 해서 보니 땀과 때로 썩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는데, 이처럼 허리띠와 같은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붙어있지 않을 때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또 흠집 없는 옹기그릇이 나올 때까지 깨버리는 옹기장이의 상징으로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고 나쁜 무화과 두 바구니 모두 성전 앞에 봉헌된 상징으로 주님께서 유배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나 모두 돌보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멍에를 메고 나타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벌하시기

위해 바빌론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셨으니 소처럼 바빌론 임금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에게 빼앗긴 숙부의 밭을 사라는 상징으로 백성의 회복에 이어 땅의 회복을 선언합니다.